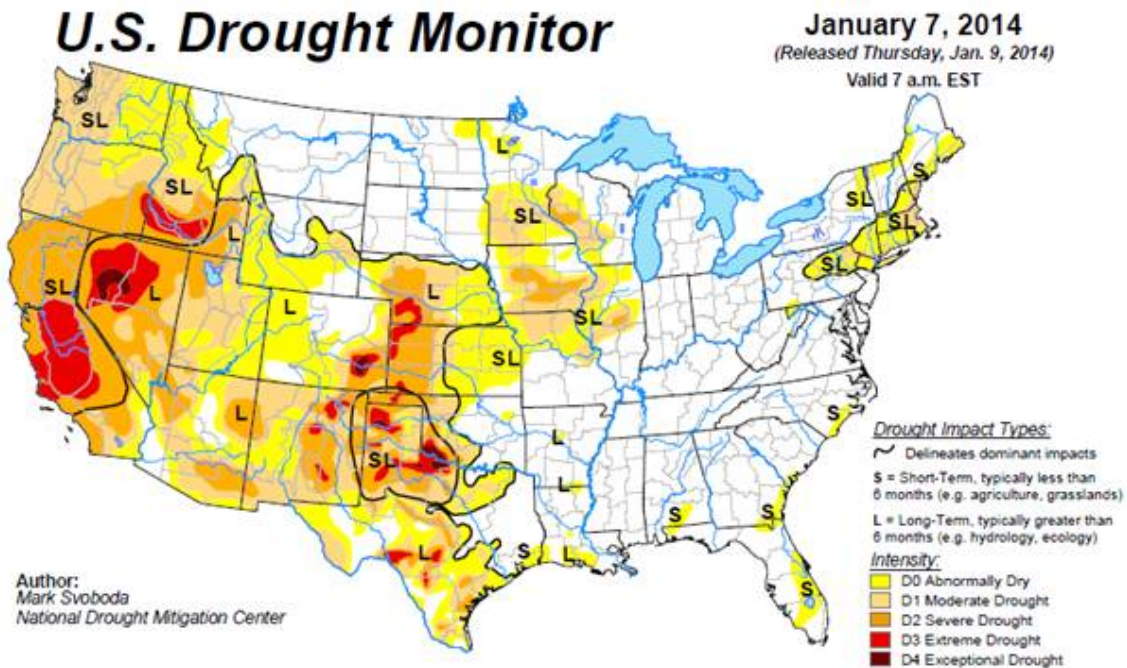


※ 1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

□ 미국 기후 현황(1/5~1/11)



겨울 농업 생산 지역인 남부 Texas 내륙과 Florida 반도를 제외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잔혹하지만 일시적인 한파가 강타하였다. 한파로 인한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Midwest 상단 지역의 기온은 영하 45~60°F를 기록하였다. 1월 6일, 영하의 기온은 남쪽으로 확대되어, 북부 Oklahoma와 Ozark Plateau까지 영향을 미쳤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 Montana에서부터 Wisconsin에 이르기까지 기온은 영하 20°F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Appalachians 동부 지역까지 0°F로 기온이 하강하였다.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동부 Texas에서부터 Great Lakes을 포함한 동부 연안 지역은 이전과 북극 한대 기단이 발생한 이후에도 넓은 지역에 강수량을 발생시켰다. 기온은 결과적으로 하강하였으며, 겨울 강수량(눈, 진눈깨비, 우박 등)이 넓게 분포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주초에 나타난 Midwest 하단 지역에서의 혹독한 날씨는 폭설로 인해 심한 바람과 몹시 추운 날씨를 동반하게 하였다. 반면, Arkansas의 일부 지역 및 남부 Appalachians에서 New England 지역의 주간 강수량은 2인치를 기록하였다. Florida 동부 연안과 같이 국지적으로는 폭우가 내려 4인치의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1월 6일 기준, 남부 Dakota와 북부 Kansas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F까지 떨어져 가을 말이 혹한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1/6~1/12)

강수량은 대체로 미국 동부 지역에 한정되어 집계되었으나, Florida와 Pacific Northwest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년대비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Atlantic 연안에 있는 일부 지역과 Rockies 산맥을 기준으로 한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기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sconsin 및 주변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기온이 10°F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5~1/11)

- 유럽: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와 소나기가 대륙에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겨울 곡물들의 발아와 생육상황에 유리한 조건들이 제공되었다. 동부 유럽의 경우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을 끼친 지속적인 고기압으로 인해 폴란드, 발틱주, 발칸반도에 이르기까지 봄 같은 따뜻한 날씨(국지적으로 평년대비 7°C 높음)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낮 최고 기온은 10~15°C까지 올랐으며, 전형적으로 더 추운 동유럽의 농업 지역에서도 눈으로 인해 농작물이 보호되지 못했다. 서부 유럽에서는 대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넓은 지역에 소나기를 발생(2~25 mm, 국지적으로 그 이상)시켰으며, 스페인 지역의 가을 밀과 보리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 수분 함량도 향상시켜 주었다. 또한, 북부 농업지역의 발아를 앞둔 겨울 곡물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주었다. 서부 유럽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3°C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 겨울 폭한을 피할 수 있었다.
- 구소련(서부): 봄 같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가을 밀의 성장에는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이 내리지 않아 지역의 특성과 상반되는 기상상황을 보여주었다. 기온은 평년대비 3~10°C 정도 높았으며, 동해로 인한 위험을 제거해 주었다. Belarus, Ukraine, 남부 Russia의 낮 최고 기온은 10°C 안팎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남부 가을 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 지난 주와 같이 더운 날씨는 지속되었으나, 기온은 Queensland와 북부 New South Wales 지역에서는 더욱 계절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름작물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감되었다. 소나기(5~50 mm 혹은 이상)가 호주 동부 대다수의 지역에 내렸지만, 남동부 Queensland와 북동부 New South Wales의 경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일반적으로 5mm 미만) 면화와 수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적인 수분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지역적으로 관개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뭄 현상이 나타난 지역의 작물들의 토양 수분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여름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최고 기온은 30°C 초·중반을 기록하였다.
- 아르헨티나: 계절에 맞지 않은 더위와 건조함이 여름 작물인 유채와 면화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La Pampa, Buenos Aires, 남

부 Cordoba, Santa Fe, Entre Rios)의 경우 주 초반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난 최고 기온은 35~40°C를 기록하였다. 더욱 서늘한 날씨가 주말쯤에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건조하였으며,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10 mm 정도)는 북동부 Buenos Aires와 Entre Rios 지역에 한정되어 내렸다. 더운 날씨(낮 최고 기온이 35~42°C) 역시 주 초반 북부 지역의 여름 작물들에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국지적으로 폭우(25~100 mm, 국지적으로 그 이상)가 이후에 수반되어 계절에 적합한 수준의 기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온(낮 최고 기온 20°C 중반~30°C 초반)을 하락시켰다. 옥수수, 대두, 면화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재생산에 거의 근접한 단계인 초기 파종된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추가적인 생산량 손실을 피하려면 더욱 평년과 비슷한 형태의 기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1월 9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은 각각 82%, 86%로 전년동기 대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을 밀의 수확은 100%(전년 동기 대비 3%p 앞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 옥수수와 대두 생산지역에 비가 계속 내렸으며, 총 강수량은 지난 주 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Mato Grosso do Sul과 서부 Sao Paulo 및 Rio Grande do Sul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5 mm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주요 농업 지역(북부 Rio Grande do Sul에서 남부 Parana)에 내린 경량의 비는 지난 주 내린 100 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건조한 날씨를 견딜 수 있었다. 더욱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대체로 계절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을 기록하였다. 동부 Sao Paulo 와 북부 Bahia 에도 역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부 Goias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최고 기온은 30°C 초반)은 평년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분 증발율로 인한 건조함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 북동부 Goias와 서부 Bahia 지역에서 2주간 지속된 건조함은 대두와 면화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계절에 맞는 강수량이 절실히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온건한 소나기(25~50 mm)와 여름에 적합한 따뜻한 기온(낮 최고 기온이 30°C 초·중반)이 수반되어야 Mato Grosso 에서부터 Tocantins 지역에 이르는 대두, 옥수수, 면화와 같은 작물의 생육에 도움이 된다. 계절적으로 더욱 건조한 날씨는 북동부 연안에 지속되었으나, 산발적인 소나기(국지적으로 25 mm 이상)가 남동부 Bahia에서 Espirito Santo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 코코아와 다른 작물들에 적절한 수분을 제공해 주었으며, 사탕수수와 타 관개 여름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